

MEK, 공급부족으로 프리미엄까지

Shell Cargo 지연 및 공급량 줄어 ... 해외 Supplier 공급량 축소로

MEK(Methyl Ethyl Ketone)가 Shell과 Sasol Germany의 공급지연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으로 kg당 80원 인상됐다.

MEK는 Solvent 및 정밀화학 원료로 사용되며 주로 코팅 및 인조가죽, Lubricant Dewaxing, 잉크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다.

국내 MEK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Shell의 2월 Cargo 1200톤이 3월13일 입항해 15일 통관됨으로써 약 한달 보름동안 공급이 지연됐고, SK를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Sasol Germany는 2004년부터 공급량이 20% 가량 줄어 3월 가격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MEK 시장 관계자는 “3월 오퍼가격이 2월 대비 50달러 인상된 것을 감안했을 때 kg당 60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ExxonMobil과 Maruzen만이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20원정도 붙어 80원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MEK는 2월까지 비수기였으나 2004년 원재료 가격폭등을 감안해 MEK 시장에서 가수요까지 일어나 가격이 상승했었다.

3월에는 MEK 수요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안정적인 공급을 해왔던 해외 Supplier들의 공급량 감소로 이례적으로 프리미엄까지 붙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MEK 시장에서 Tonen을 통해 공급해오던 ExxonMobil이 2003년부터 지분에 따른 경영권 행사를 시작했는데, 3월부터 기존의 Idemitsu상사를 통해 공급해왔던 MEK를 Exxon Korea와 Exxon Japan만을 통해 공급하기 시작해 ExxonMobil이 시장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물산이 동명약품에서 가지고 있던 오퍼권을 추가 확보해 기존의 월 800톤에서 300-400톤을 추가 확보했다.

2004년 MEK는 6월까지 공급타이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는데, Maruzen은 5월에서 6월 중순까지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어 약 한달치 공급량이 부족하고 Shell과 Sasol도 공급량 줄었다.

국내 MEK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시장 관계자는 “중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신장했고 가격도 높게 거래돼 해외 Supplier들의 일부 공급선이 중국으로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MEK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MEK 수요는 2005년 20만톤, 2010년 30만톤으로 2003년 MEK 수요가 7만2000톤이었던 한국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MEK는 2004년 3월 울산지역 상차도 가격 kg당 950원, 경인지역 도착도 980-102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4월 해외 Supplier들의 오퍼가격이 톤당 100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kg당 100-15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3/31>